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가정 성화 주간)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렘브란트, 〈성가정〉(1645)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미술관, 러시아



은총의 가정

화가 렘브란트는 '성가정'을 주제로 여러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중 에르미타주Hermitage 미술관(St. Petersburg)에 소장된 성화는 성가정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요람 속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마리아의 눈빛과 표정은 어머니로서 그녀의 마음 상태를 헤아려 볼 수 있게 하고 어둠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요셉의 모습은 애잔함과 함께 듬직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인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계십니다.¹⁾

여러분의 가정을 여느 화가들처럼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모습의 작품이 나올까요?

초등학교 두 딸을 둔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족의 모습을 그려보라 했더니 그림 속에서 부모는 찾을 수 없고 두 아이의 모습, 그것도 까맣고 긴 머리카락이 돋보이는 그들 뒷모습만 그려 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늘 밤늦게까지 학교와 학원에 다녀야 하고 부모는 생활비, 교육비 마련을 위해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부부 서로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딸들이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는지 관심조차 가지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슬픈 고백을 털어놓습니다.

여러분의 작품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그려져 있나요? 각각의 표정은 어떤가요? 무슨 옷을 입고 어떤 자세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밝게 혹은 어둡게 그려진 부분은 어디인가요? 가족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는 그림인가요?

우리는 오늘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을 지냅니다.

사실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표현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가득했던 가정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들의 잉태를 받아들여야 하는 마리아와 파혼을 결심한 요셉은 가정의 시작인 결혼부터 갈등과 시련의 시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이러한 갈등과 시련을 신앙으로 이겨낸 참 부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편 요셉은 하느님께 대한 마리아의 순명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마리아는 신앙으로 자신을 맞아들인 요셉의 믿음을 존경하고 의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셉과 마리아의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인류를 구원 하실 구세주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가정의 바탕이 되었고 하느님 섭리가 이루어지는 은총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희망하고 추구해야 할 성가정은 인간적인 만족이나 행복만을 추구하는 가정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을 순명과 사랑으로 승화시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은총의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에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하느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 가정을 성가정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미하는 거룩한 가정이 되도록 애를 써야 하겠습니다.



1) 구글 'Arts & Culture' 앱을 이용하여 'Holy Family'를 검색하시면 루벤스, 엘 그레코, 티치아노 등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실 수 있고 다른 미술관의 여행도 가능합니다.

최태준 필립보 신부 | 산청본당 주임



제 1 독 서	집회 3,2-6.12-14 또는 창세 15,1-6; 21,1-3
화 답 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제 2 독 서	콜로 3,12-21 또는 히브 11,8,11-12.17-19
복 음	루카 2,22-40 또는 루카 2,22.39-40

주일 진레



사도행전 읽기 17

염철호 요한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바오로의 체포(21,17-36)

세 번째 선교여행이 끝날 무렵 바오로가 신변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바오로를 만류했지만, 바오로는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해외 교회에서 거두어들인 헌금을 전하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모교회 사람들은 헌금을 감사히 받으며 바오로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모교회를 다스리던 야고보는 유다인들이 바오로가 모세 율법을 배척한다고 오해하고 있으니,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네 사람의 나지르인들의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그 제사 비용을 맡으라고 권고합니다. 이에 순응한 바오로는 정결 예식을 행한 뒤 성전으로 올라가 자신이 율법을 거스르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다인들이 바오로를 알아보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오로를 죽이려고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성전 북쪽 편에는 예루살렘을 감시하던 천인대장이 머물던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축제 때마다 바닷가의 카이사리아에 머물던 총독이 올라와 지내던 총독 관저로, 예수님께서 재판 받은 뒤 가시관을 쓰고 매를 맞았던 곳입니다. 이 요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 볼 수 있었는데, 문제가 벌어지면 즉시 지하 통로를 이용하여 예루살렘 성전 내부 뜰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 병사들이 성전 마당에서 일어난 소동을 지켜보다가 천인대장에게 보고하자, 천인대장은 백인대장들과 함께 개입하여 사람들이 바오로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렇게 하여 바오로는 안토니오 요새로 잡혀갑니다.

바오로의 변론(21,37-22,21)과 로마 시민권 행사(22,22-29)

바오로는 천인대장에게 기회를 얻어 백성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에서 바오로는 자신의 회심 이야기와 이방인에 대한 선교 사명에 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마치,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듯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바오로의 이야기를 듣던 군중은 그의 말문을 막으며 죽이려 합니다. 백부장이 소란의 이유를 알기 위해 바오로에게 매질을 하려 하자, 바오로는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알립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다양한 권리를 지니고 있었는데, 황제에게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와 재판 없이 투옥되거나 심판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바오로는 여러 번 감옥에 갇히거나 재판을 받고 매질을 당했지만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오로는 의도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로마로 인도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23,11 참조). 이처럼 자랑할 법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할 때도 바오로는 오직 주님의 일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나의’ 목소리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음악치료라는 게 뭔가요?

사랑과 함께 치료합니다. 제 아들이 청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강제로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아들을 통해,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볼리비아를 갔을 때 탄광에서 학대당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심적인 고통 때문에 말을 못 했습니다. 음악치료는, 목소리를 통해서, 내 안에 억눌려 있던 고통이 밖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표현해냄으로 자유롭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있는 힘껏 목소리를 냄으로써 자신을 찾아내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터져 나오는 경험을 한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영혼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밖으로 터져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냥 소리로 터져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목소리’라는 단체를 설립한 마리안 세바스티안 여사가, 올 1월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TBS 시민의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영화 시스터 액트(1992). 클럽에서 가수로 일하는 들로리스는 법정 증언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수녀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침에 깨기 힘들어하는 그녀에게 아주 암전해 보이는 수련수녀 메리 로버트가 자명종을 주기 위해 찾아옵니다.

지금은 네 시 반이면 깨지만, 처음엔 참 힘들었어요.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늦되는 것 같아요. /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원래부터 수녀가 되고 싶었나요? / 늘 내 소명이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봉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내 안에 남다른 재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하게 들리죠? / 전혀요. 그 마음 이해해요. / 함께 있게 되어서 기뻐요. ... 개성을 감추려니 힘든 걸 아세요? / 알다마다요.^^

들로리스가 다음날부터 성가대 연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로버트 자매, 앞으로 나와 보세요. 입은 벌리는데 소리는 안 들리는군요. 큰소리로 불러 봐요. / (모깃소리로) 아... / 이렇게 해봐요. 눈을 감고, 식당이라고 상상해 봐요. 접시 떨어지는 소리, 사람들 왁자지껄한 소리 등등, 수녀님 목소리는 그 소리보다 더 커야 돼요. 식당 구석에 앉은 내게까지 들리도록. 큰! 소리로 노래를 해봐요.

그렇게, 메리 로버트 수녀는 본인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 깜짝 놀랄만한 큰소리를 냅니다. 상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수녀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 자신 안에 남다른 재능이 있다고 느끼지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수도 공동체에서는 자신의 개성을 감추어야 한다는 생각, 그것들이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었고, 노래를 해도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내뿜는 목소리를 통해, 두려움과 수줍음에 움츠려든 눈이 밝게 빛나며 활짝 열렸고, 몸도 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표현력이 좋은지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몰랐던 자신의 진면모를 찾아내고,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인간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느님 뜻은 이웃을 통해 전달이 됩니다. 하느님의 초대에 나 ‘스스로’ 응답할 때, 나는 자유를 찾습니다. 초대와 응답, 세상살이의 비결입니다.

저는 국악을 제 의지로 시작하지 않았구요, 부모님에 의해 시작을 했어요. 부모님이 시켜서 한 국악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저의 꿈이 정해져 버렸고, 어느 순간부터, 국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천재 국악 소녀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아이로 계속 길을 걸었어요. 조금 행복하지 않게. 그렇다면 왜 나는 이 큰 고민을 아무한테도 15,6년 동안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봤는데, 저는 어렸을 때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부모님이 다 해주셨거든요. 스케줄 잡고 섭외 문의, 매니저, 운전, 현장에서 할 일들, 악역까지 다 맡아 주시면서 저를 곱게 키우시려고 수많은 가지들을 다 쳐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혹시 시라도 피해가 가는 일이 있을까봐 사사로운 인연들도 다 끊으셨어요. 그런 걸 보다 보니 전 당연히, '국악'이라는 정해진 꿈이 나에게 흥미를 주는가, 적성에 맞는가를 생각할 때가 아니구나, 나는 그저 부모님이 닦아놓으신 길을, 말 잘 듣고 착하게 걸어가는 것이 내 정해진 운명이구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틀에 갇히다 보니까, 제가 성격이 변하더라구요. 원래도 그렇게 적극적인 성격은 아니었는데, 정말 병적으로 소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일기를 써요. 근데 일기장이 재작년꺼부터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내 솔직한 감정을 담아낸 것인데, 그것도 누가 볼까봐, 그냥 버린 것도 아니고, 찢어서, 검은 봉지에 묶어서, 태워서 버렸어요. 제가 그 정도로 소심하게 그 틀에 갇혀서, 정말 피곤하고 불행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SNS에

서 보니 군산에 예쁜 기차길이 있길래 여행을 갔어요. 그날따라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차길을 한 3,40분 혼자 걸었어요. 걷다 보니 옆에 정자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혼자 여행 왔냐 물으시며, 뭐 힘든 일 있나 보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힘들겠지만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흐르는 대로, 그 흐름을 타고 가라고. 근데 사실 이런 말이, SNS에서 정말 진부하게 볼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에 위로를 받고, 느끼게 되



었어요. 이 틀을 거역하지 말자, 거역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 이 틀을 넓힐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하면서 살자고 생각했어요. 일상으로 돌아와서 처음으로 제가 한 것은, 국악원을 나왔어요. 국악에서는 특히나 선생님의 계열이 있어서 스승의 기교를 그대로 구현해야 잘한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가진 목소리의 장점으로 국악을 표현해서, 저만의 방법으로 전통을 지켜가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선택한 이, 국악의 길”이었어요. 그렇게 국악원을 나와 서양음악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피아노도 하고, 기타도 하고, 작곡도 하고, 미디도 하고 있고, 힙합 콘서트도 가고, 다른 가수들 콘서트도 많이 보러 다녔어요. 전에는 국악 소녀가 힙합 콘서트 가서 ‘스~웁’, ‘탄~업’,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웃겠어, 내 이미지에 금가는 행동이다, 스스로 너무 지나치게 틀에 가두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변화가 된 게, 큰 음악 안에서 국악을 바라봤을 때, 우리 국악이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국악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내가 정말 멋있는 음악 하는 사람이구나, 자부심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170118. 말하는 대로, 17회

운명이자 굴레였던 국악. 국악 소녀라는 틀을 ‘인정’하고, ‘더 큰 틀’ 속에서 특별한 국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다. 얼마 전, 방탄소년단의 ‘봄날’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혼을 담아 부르던 노래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송소희가 송소희다울 때, 제일 이뻐했습니다.



일림



기억할 선종 사제

현기호(시몬) 신부
1985년 12월 30일

교구/본당

고3 피정

일시: 2021년 2월 20일(토) 13:00~21일(주일) 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주제: 잃어버린 나를 찾는 여정(중독과 회복)
강사: 홍성민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교수)
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참가비: 1인 6만 원
(교구사목비 면제 본당 3만 원)
준비물: 필기구, 미사 준비(봉헌금), 세면도구(수건), 간편한 복장(따뜻한 옷), 텀블러, 마스크
신청: 21년 2월 7일(주일)까지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위원회/기관/단체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월 1주(토)
장소: (마산) 월영성당 10:00
(창원) 사파동성당 10:00
(진해) 중앙동성당 10:00
(거제) 고현성당 10:00
(진주) 평거동성당 10:00
(통영) 태평동성당 10:30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4848·7106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화) 10:30 교구청
창원: 1주(목) 20:1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진주: 1주(주일) 15:30 하대동성당
문의: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기타

2021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김정우 요한 신부)

정시모집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DCU스마트인재장학』 전원! 장학혜택!
원서접수: 2021년 1월 7일(목)~11일(월)
입학정원: 2,862명
문의: 053·850·2580

부산가톨릭대학교 2021학년도 신입학 정시모집

원서접수: 2021년 1월 7일(목) 09:00~11일(월) 18:00
모집학과: 간호학과 외 17개 학과
※선발인원은 홈페이지(ipsi.cup.ac.kr) 참조
전형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100%
문의: 입학관리부 김종진(모세) 051·510·0702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기간: 2021년 2월~12월(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문의: 02·828·3600/ 대상: 15세 이상 남
※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예수회 동영상 및 실시간 영상 강의(3월 개강)

내용: 성경대학 동영상 녹화 강의(송봉모 신부)
한 학기 7회 동영상 링크 발송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묵상기도, 관상기도, 성찰과 식별 등(원하면 신부)
실시간 영상 강의(ZOOM),
매주 목 14:00~16:00 (11회)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www.holyfcac.or.kr

문산본당 제40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김영조(요한)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이병엽(요아킴)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이영희(요안나)
총무분과위원장: 조경석(요한)
재경분과위원장: 임우택(바오로)
기획·교육분과위원장: 신승노(스테파노)
전례분과위원장: 김미순(마카렐라)
복음화분과위원장: 김연숙(레지나)
구역분과위원장: 류혜성(모니카)
사회복지분과위원장: 한호영(가브리엘)
시설분과위원장: 강재은(가브리엘)
청소년분과위원장: 김진호(레오)
가정사목분과위원장: 황옥남(루치아)
홍보분과위원장: 정현민(파트리치오)
미래와 문화재 보존 위원장: 강도욱(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구리아단장: 정성길(라우렌시오)
사봉공소- 회장: 권해진(바오로)
부회장: 현일순(아네스)
총무: 김선기(안드레아)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021년 1월 10일(주일) 09:30	서울 돈암동 본부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Enjoy your life AV Team (주)AV팀 Since 2005~ avteam.co.kr 음향, 영상 시스템 설계/ 시공/ 방문 점검 및 컨설팅 김지훈 바오로 010-3243-5655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종 세트 10개 1박스 3종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절,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가톨릭마산 교구보 배너 광고 신청받습니다 문의: 미디어국 055)249-7072	제주성지순례 3박 4일 32만원 생지 7개, 신부님 동행,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일 립

2021 교구 사제·부제 서품식

일시: 2021년 1월 12일(화) 14:00 장소: 주교좌 양덕동성당 주례: 교구장 배기현(콘스탄틴) 주교

사제품 대상자



박진웅 프란치스코

첫미사 하대동성당

2021년 1월 14일(목) 19:30



심정현 요한드라살

첫미사 함안성당

2021년 1월 13일(수) 19:30

※ '코로나19'로 인하여 서품식에 가족만 참석합니다.

교우들은 마산교구 유튜브 채널(웹 주소: bit.ly//성당)에서 실시간 방송을 통해 함께해 주십시오.

부제품 대상자



계강준 요한

칠원본당



김현 안드레아

반송본당



임태근 모세

호계본당



정병진 요셉

함안본당



신승혁 요한

장평본당



남하늘 엘리시오

대방동본당



교구 소식

허계순(마리아) 자매, 가톨릭 농민회에 땅 기증

허계순(마리아) 할머니는 11월 17일 교구 가톨릭 농민회(담당: 강형섭 미카엘 신부)에 땅(전 500평)을 기증하였다. 기증한 땅은 젊은 시절부터 고구마와 고구마 줄기를 마산 어시장에 내다 팔아 모은 돈으로 마련한 전답이다. 그리고 오래전 인천으로 이사하여 폐지를 줍고, 거리를 청소하며 모은 300만 원도 교구에 기증하였다. 앞으로 기증한 땅이 좋은 먹거리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잘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남용현 회장(교구 가톨릭 농민회), 허계순(마리아), 강형섭 신부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싶어 잠깐 자리를 빌립니다.

지난 3월 2일,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 때문에 성당의 전례가 멈추고 모두가 어리둥절해 있을 때, 교구 사회복지국으로 이 시기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아동·청소년을 위해 써달라며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3월 6일부터 9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지역아동센터(7개소), 공동생활가정(3개소), 본당 소상공인 가정의 중·고등학생(37개 본당 37명), 다문화 가정 자녀(20명), 새터민 가정 자녀(43명) 등에게 식료품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희망이 되어 주신 익명의 천사께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서로에게 천사가 되어준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국 가족 일동





카인과 아벨

김영선 루시아 수녀 / 광주가톨릭대학교

태초의 범죄로 인하여 떨어진 하느님과 인간, 땅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갑니다. 사람과 그 아내의 불순종의 죄는 창세기 4장의 카인과 아벨의 때에 이르면 형제 살해로 확대됩니다. 낙원에서 추방당한 사람과 그 아내는 카인과 아벨을 낳았고, 카인은 농부가, 아벨은 양치기가 되었습니다. 카인은 땅의 소출을 하느님께 바쳤고, 아벨은 양 떼 가운데 만배들과 굳기름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느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굽어보셨지만 카인과 그의 제물은 굽어보지 않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카인은 몹시 화를 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왜 카인의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는지 성경 본문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그 이유를 굳이 설명하지 않은 것은 하느님의 결정이 어떤 것이든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데 더 초점을 둔 까닭일지도 모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푸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푸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풀다.”(탈출 33,19) 하느님께서 왜 그런 선택을 내리시는지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누가 하느님께 이런저런 선택을 내리시도록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저자는 인간의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불공평함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인은 하느님의 선택에 불만을 품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카인에게 죄에 굴복하지 말라고 조언을 하십니다. “죄악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너를 노리게 될 터인데, 너는 그 죄악을 잘 다스려야 하지 않겠느냐?”(창세 4,7) 여러분이 만약 카인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카인은 하느님께 직접 여쭙보지 않았을까요? 왜 자신의 제물은 받아주지 않으시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가 하느님을 신뢰하였다면, 그분이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임을 믿었다면, 카인은 하느님께 직접 하소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그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께 그런 말씀을 직접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분을 가깝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화를 내는 그를 찾아오실 만큼 그를 사랑하시는데 카인은 그 사랑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카인은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죽여 버립니다. 이번에도 하느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십니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스스로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카인은 그것마저 거부합니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는 서로를 지키고 돌보도록 맺어 주신 형제 관계를 거부합니다. 카인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과 땅의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카인은 저주를 받아 아벨의 피로 물든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담이 이마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돌아난 땅에서 소출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 카인은 땅을 부쳐도 수확을 얻지 못한 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그제야 카인은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하느님께 직접 호소합니다.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인 동시에 자비하신 분이시기에 동생을 죽인 카인에게도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느님께서는 카인에게 표를 찍어 주셨고, 그를 죽이는 자는 일곱 곱절로 앙갚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놀랍기만 한 죄와 심판과 자비의 삼중주입니다.

